

금강산에서 대둔산까지 선풍과 교해가 출렁이네

48 남과 북의 바람을 한 품에 통진 문수사

강화대교를 건너기 전, 오른쪽으로 성곽이 구불구불 능선을 타고 오릅니다. 조선 숙종 때 축성된 문수산성입니다. 산비탈로 난 토기길을 따라 산을 오릅니다. 눈이 수북 쌓여 있는 비탈길은 제법 미끄럽습니다. 생각보다 경사도 가파릅니다. 반 시간 가량을 험히 거리며 오른 곳에 문수사가 있습니다.

요사채는 근래에 새로 지어 말쑥하지만 비로전은 다소 낡은 모습입니다. 1971년 화재로 전소된 자리에 새로 지은 법당인데, 안에는 비로자나 부처님과 신중탱화, 산신탱화, 독성탱화가 모셔져 있습니다. 누가 먼저 다녀갔는지 향이 반의반쯤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 향을 사워 올리고 절을 올립니다.

연초부터 물가(物價)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구제역에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에 육한까지 덮쳐 뒤송송한 세상이 하루속히 평화로워 지기를 빌며 정성껏 삼배를 올립니다. 문풍지 사이로 황소바람이 웅웅 소리를 내며 들어옵니다.

비로전을 나와 오른쪽으로 난 좁은 길을 따라 200m쯤 가면 풍담 대사(楓潭大師 1592~1665) 의식(義識) 스님의 부도와 비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벽응(碧應 1909~2000) 스님의 부도와 비가 찬바람을 맞으며 서 있습니다. 좌우로 뻗어 내리는



대흥사에 위치하고 있는 풍담대사비.

문수산 능선의 중앙에 풍담 스님과 벽응 스님의 부도를 모시기 위하여 봉우리 하나를 더 쌓은 듯 뻗어 내린 능선 위에 부도와 탑비가 우뚝 서서 겨울 하늘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풍담 스님의 부도는 팔각원당형을 계승했지만 조선 중기의 양식답게 많은 부분이 생략된 간결한 맵시입니다. 사각의 지대석과 기단 위에 팔각의 하대석은 복련을 차장했고 중대석과 상대석은 열린 신중 문양을 넣었습니다. 둥근 몸돌 위에 경사가 급한 옥개석을 얹었는데 상륜부까지 온전하게 잘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탑의 크기에서 옥개석의 비중이 좀 지나쳐다 싶습니다. 탑비도 그리 높지 않고 귀부나 아닌 사각의 비꽃이에 몸돌을 끼우고 구름무늬가 깊게 새겨진 이수를 얹었습니다. 비의 높이는 280cm인데 현재 경기지방유형문화재 제91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부도 앞에서 사방을 둘러봅니다. 멀리 강화도의 안쪽길이 흰하늘 보이고 통진 나루와 강화대교가 밝아 놓여 있습니다. 강화대교 아래 물살이 빠르게 흐르고 얼음덩어리가 동동 떠 있습니다. 북서쪽으로 몸을 돌리면 문득 천안함과 연평도가 생각납니다. 고승의 부도는 남쪽과 북쪽의 바람을 구별하지 않고 받아들이겠지만 그 앞에 선 순례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아래 유격장에서 해병들의 흰찬 구호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날씨만큼이나 맵찬 감상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벽응 스님은 문수사가 있는 김포에서 출생해 16세에 윤월 스님을 은사로 장단 화정사에서 출가한 이래 평생 법도의 계승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고승입니다. 교학과 선수행을 두루 닦은 스님은 1954년부터 문수사에 머물며 절을 중건했고 이 절에서 입적했습니다.

송암 스님과 더불어 1969년 옥천범음회를 설립해 영산재 복원에 갖은 노력을 기울였고, 1973년 송암 스님과 나란히 주요무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됐습니다. 하늘의 뜻인지는 몰라도 2000년 2월 1일에 송암 스님이 입적하고 3월 25일 벽응 스님이 입적했습니다. 벽응 스님의 부도와 비는 2001년 5월에 문도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풍담 스님 역시 김포 통진에서 조선 선조 25년(1592) 출생했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던 그 위태로운 시절에 태어난 스님은 16살에 출가해 서산 대사의 맥을 이은 편양(鞭羊 1581~1644)대사의 법맥을 이었습니다. 풍담 스님에게 법을 이은 제자가 50여 명이나 되었다고 하니 조선 중기 불교계의 거목이었음은 분명합니다. 풍담 스님의 고향은 통진이지만, 살아생전 문수사와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곳에 부도와 비가 세워진 것은 워낙 고매한 스님의 임적을 안타까워 한 제자들과 지역 불자들이 뜻을 모아 벌인 불사였습니다.

문수사 능선에 서 있는 풍담 스님의 부도비는 판중추부사를 지낸 조정(趙鼎)이 지었는데, 아쉽게도 스님의 행적보다는 지은이의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비문 가운데 대부분이 지은이가 스님의 생애를 일방적으로 평하는 내용입니다.



풍담 대사는 산전을 유람하며 큰스님들과 법을 묻고, 선풍을 가다듬었다. 사진은 문수사 능선 위에서 서 있는 풍담 대사 부도와 비.

풍담 스님의 부도와 비는 북한의 영변 보현사에도 있고 금강산 백화암에도 있다고 전합니다. 남한에서도 또 한 곳에 부도와 비가 전하는데 바로 해남 대흥사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대흥사는 서산 대사가 유해를 남겨 자신의 의발을 보존케 함으로써 조선 중기 이후 선교 양풍의 거찰로 발전한 절입니다. 대흥사는 서산 대사 이후로 13명의 대종사와 대강사가 배출된 도량입니다.

여러 사찰들을 돌아다니며 큰스님들을 만나 법을 묻고 답하며 활활발발한 선풍을 가다듬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화엄 등의 경전에 주석을 달았다는 대목은 <동사열전>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조 22년(1644)에 편양이 묘향산에서 미질(微疾)을 보이자 풍담은 문안차 스승을 찾아 배알하였다. 편양은 <화엄경>과 <원각경>에 제가(諸家)들의

의 두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풍은 풍담 스님의 제자인 월저(月渚 1638~1715) 스님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월저 스님은 스승인 풍담과 할아버지 뻘인 편양 스님의 유업을 받들어 <화엄경>의 한글본을 완성한 장본인입니다. 월저 스님은 선풍을 드날리면서도 ‘화엄종주(華嚴宗主)’라 평가 받을 정도였다고 전합니다. 대흥사 13대종사의 서열에서 세 번째가 월저 스님입니다.

풍담 스님은 금강산에서 대둔산까지 선의 바람을 일으키고 교학의 바다를 출렁이게 했습니다. 그 스승의 뜻이 그러했고 그 제자의 계승이 그러했습니다. 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앞 시대의 문물과 정신을 다음 시대로 넘겨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앞 시대를 다음 시대로 찬란하게 하는 것이 지금 시대를 사는 사람의 과업입니다. 그 과업을 게을리 하면 시대가 불온하고 성장시키면 문물과 제도 그리고 정신이 찬란하게 빛나게 됩니다.

오늘의 한국불교는 무엇을 다고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 때입니다. 풍담 스님의 임종계가 빠를 드러낸 능선 너머에서 매어리처럼 들려옵니다.

기이하여라, 이 영묘한 물체는 죽음에 이르러 더욱 쾌활하다니
나고 죽음에 달라지지 않네
가을 하늘 달이 밝고나.



임연태 = (시인·본지논설위원) mian1@hanmail.net

법패 계승 발전에 헌신한 벽응 스님 '화엄경' '원각경' 주석 정리 풍담 스님

그 13명의 대종사 가운데 첫 번째 대종사가 바로 풍담 스님이고, 그 마지막 13번째 대종사가 초의 스님입니다. 대흥사 부도발에는 풍담 스님의 부도와 비가 서 있습니다. 서산 대사의 부도와 비, 초의 스님의 부도와 비 그 중간쯤에서 서 있는 풍담 스님의 비는 321cm의 높이에 김우형이 글을 짓고 글씨를 썼습니다. 김우형은 승정원 도승지와 예문관 직제학 등을 지낸 문신입니다.

비문에 “드디어 남쪽으로 이름난 산전을 유람하면서 여러 장로들의 거처에 출입하였으며, 금강산과 보개산에 그 자취를 남겼으며, 화엄 등의 경전에 주석을 달아 깊은 뜻을 밝혔”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편양 스님으로부터 법을 인가 받은 뒤, 남쪽의

주소(註疏)가 번잡한데 미흡한 부분이 많아 산삭하고 윤문하려 했으나 미처 손을 대지 못하고 있던 참이었다. 때마침 풍담이 문안차 방문해 오자 편양은 풍담의 손을 잡고 자신이 못다한 <화엄> <원각>의 주소 정리 작업을 부탁했다. 풍담은 <화엄> <원각>의 교해(敎海)에 깊숙이 침잠, 5~6년간 반복하여 열람한 다음 오류를 바로잡고 사이사이 종지를 드러내 밝혀 하열한 근거들까지도 경전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서산 대사 이후에는 선교양풍의 가풍이 자리 잡았습니다. 서산의 적자인 편양 스님이 화엄과 원각의 주소를 정리하려 했던 점과 그의 제자 풍담 스님이 그 과업을 찬란하게 마무리 했으니 선교 교는 수행

현지사 소개 그 열다섯번째 주제 - 미륵보살 -

미륵보살님의 실체를 밝힌다 - 사바세계에 몸받아 3번이나 불과를 증하신 대붓다!

또 하나의 경천동지할 소식- 미륵보살님의 사바세계 상주 주처이자 미래제 몸을 받아와 불과 이루실 성소 '현지구 현지사'

미륵보살님의 진정한 실체

미륵(Maitreya)보살님을 알고 계십니까? 미륵보살님은 미륵신앙을 지닌 불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여러 타종교인들에게까지도 자주 언급되고 있는 분이십니다. 주로 미래불로서 이 세계의 구원자(메시아)로서 알려져 있기도 한 미륵보살님은 <미륵삼부경>에서 중심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미륵보살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각 종교와 종파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경전상의 문구를 아전인수하여 작위적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불타회상 현지사에서 당연히 현지사만이 알 수 있는 미륵보살님의 실체를 밝히고자 합니다.

사바세계에 이미 3번이나 불과를 증하신 대붓다

한 분의 붓다가 법계에 나시기 위해서는 수억겁의 수행을 마친 대보살께서 사바세계에 몸을 받아와 부처님의 가피를 받고 자신의 수행을 마무리지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불과를 이루어 삼신을 갖춘 한분의 붓다는 일대사인연으로 원력수생하여 사바세계에 다시 몸을 나누어, 보살행만을 하시기도 하고 혹은 다시 자신의 화신으로 붓다를 이루어 중생을 구제하기도 합니다. 미륵보살님은 이미 셀 수 없는 시간 전에 불과를 증하시고 다시 사바세계에서 몸을 받아 세 번씩이나 불과를 증하신 분이십니다. 이때의 불명이 각각 '보시등광불', '해위등왕불', '미륵선광불'이며 '미륵'은 보살명입니다

도솔천 내원공 교주

미륵보살님은 붓다이기 전에 당신의 정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곳이 바로 도솔천 내원궁이며, 내원궁은 현상계 육도하늘 중 육계 4번째 하늘인 도솔천 깊숙이에 있는 정토입니다. 그렇기에 미륵보살님께서 다시 사바세계에

서 불과를 이루신다 하더라도 사바세계 교주는 석가모니부처님이지 미륵보살님은 아닙니다. 옥황상제와 미륵보살님을 같은 분으로 보는 곳이 있습니다. 당연히 서로 다른 별개의 인격이시며 옥황상제는 붓다도 아닙니다. 천상계의 내원에 계시는 옥황상제의 위치는 외도의 주장이며, 하늘신의 왕으로서 모자람이 없지만 삼신을 갖추지 못한 이상 붓다는 아닙니다.

법상속 대가섭존자와 법왕자 아난존자의 16번째 스승

현지사에는 이번 생애 불과를 증하신 두분의 큰스님께서 계십니다. 한분은 2600년 전 부처님 당시 가섭존자로서 최초불 석가모니부처님의 법상속자이시며 다른 한분은 다문계일 아난존자로 문수보살님의 범왕자이십니다. 그렇기에 현지사에는 두분의 마지막 수행을 위한 스승으로서 우주 온 법계의 범왕이신 석가모니부처님의 보신불을 위시하여 차례로 불과를 증하신 오여래부처님께서 상주하시며 그 좌우보처를 비롯하여 산왕부처님과 치성광여래부처님 등 기라성 같은 불보살님들께서 상주하십니다. 미륵보살님께서는 이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시교자 석가모니부처님의 허락을 얻어 경인년 음력 3월 25일 두분 큰스님의 16번째 사부님으로 오셨습니다.

'현지구 현지사의 승려가 되어 불과를 이루신다.

경전상의 내용대로 미륵부처님은 불법을 펼치시고자 또 다시 사바세계에 몸을 받아 오실 것입니다. 다만 경전상의 출세 시기는 상징으로 보아야 하며 부처님 열반 후 3천년 경에 다시 이 땅에 몸을 받아오셔서 이곳 현지구 현지사의 승려로서 불과를 이루어 사바세계에 부처님 교법을 펼칠 것입니다. 이곳 현지사의 많은 착한 신도분들은 미륵부처님 회상을 만나고자 하는 행원에 따라 그 언젠가 미륵부처님의 출세에 자리를 함께 할 것입니다.

<미타성전 현지사 대전분원>

붓다의 정안으로 서방정토 극락세계와 링크된 사바세계 유일의 진정한 미타성전!! 서방정토 극락세계 교주 아미타부처님께서 항상 머무시는 사바세계의 상주처!

'아미타불 염불행자' 들을 접수하시는 성지 중의 성지!



품격있는 조경을 자랑하는 현지구 현지사



현지구 현지사 춘천본사에 오시면 경내 전체에 드리워진 푸른 소나무 숲을 보실 수 있습니다. 100년 생에 이르는 고송을 포함 약 1000여 그루의 소나무 숲이 화려하고 웅장한 전각들과 어우러져 붓다님들께서 머무시는 부처님회상의 사찰로서 기품과 면모를 자랑합니다.